

研究論文

최한기 기사상(氣思想)의 정치사상적 성격과 의의

김 정 호*

I. 들어가는 말	III. 정치목표 달성의 이론적 토대
II. 민중삼(民中心)의 정치론과 국가발전의 정치목표	IV. 정치목표 달성의 정책대안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세기 중반에 활동한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1803-1879)¹⁾ 기사상(氣思想)의 정치사상적 성격과 의의를 조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유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최한기 사상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학 중심의 연구방법론에서 벗어나 정치사상적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최한기 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기철학(氣哲學) 내지는 기학(氣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기철학 또는 기학 중심의 연구경향은 독자로 하여금 최한기 사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

1) 최한기(崔漢綺)의 가계(家系) 및 구체적 행적에 관해서는 李佑成, 「明南樓叢書 叙傳」 및 「惠岡年表」, 『明南樓叢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1)와 權五榮,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研究』(集文堂, 1999), 25-63쪽을 참조 바람.

2) 1990년대까지의 최한기 사상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김용현, 「최한기 연구의 어제와 오늘」, 『오늘의 동양사상』, 제8호(2003), 209-226쪽을 참조 바람. 2000년 이후 최한기 사상에 대한 철학방면의 종합적 연구성과로는 金容沃, 『讀氣學說: 최한기의 삶과 생각』(동나무, 2004); 권오영 외, 『혜강 최한

상의 철학적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이기론(理氣論)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전통의 이론체계가 철학적 본체론(本體論)이라기보다는 그 이론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형성된 사상정책의 일단(一端)”³⁾이라는 점과, 한국정치사상 연구방법론에 있어 “특정 연구대상이 포함하는 이론적 개념적 완전성 여부를 따지거나 현실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에 집중하는 테오리아(theoria)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민족과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등을 고려하는 프락시스(praxis)적 차원의 연구가 중요하다”⁴⁾는 기존 연구의 지적을 감안하면, 기철학 또는 기학에 대한 지나친 철학적 해석과 평가는 최한기 사상의 정치목표와 이론적 논의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것이 지닌 정치사상적 의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기철학’으로 대표되는 이기론 중심의 철학적 논의와 함께 현실관·정치론·정책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최한기 ‘기사상(氣思想)’을 다루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 최한기 기사상의 성격과 의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철학적 정치사상 내지는 개혁사상과의 사상적 연관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한기 기사상의 독창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최한기 사상을 검토한 기존의 연구들⁵⁾은 정치적 시각의 해석과 평가라는 연구방법론상의 의의에

가: 동양과 서양을 통합하는 학문적 실험』(청계출판, 2004); 박희병, 『문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돌베개, 2003); 이현구, 『崔漢綺의 氣哲學과 西洋科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최영진 외,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철학과 현실사, 2000) 등을 들 수 있다

- 3) 김만규, 「理氣論의 政治的 照明」, 『재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1981), 59 쪽
- 4) 정운재, 「「자이준거적 정치학」과 한국정치사상 연구: 문제해결적 접근의 탐색」,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5 쪽
- 5) 이와 관련된 다른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손문호, 「惠崗 崔漢綺의 정치사상 연구 『人正』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제16집(2003), 227~245 쪽; 이행훈, 「崔漢綺 政治思想의 근대적 성격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11집(2002), 153~174 쪽; 안외순, 「유가적 군주정과 서구 민주정에 대한 조선 실학자의 인식: 惠崗 崔漢綺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제35집 4호(2001), 67~86 쪽; 박효문, 「최한기의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社會政策論叢』, 제13집 제2권(2001), 137~169 쪽; 안외순, 「조선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론의 추이: 최한기에서 독립협회까지」, 『社會科學研究』, 제19호(2000), 38~65 쪽; 김한식, 「해강사상에 나타난 근대성 논리의 구조」, 『韓國政治學會報』, 제4집 4호(2000),

도 불구하고 주로 최한기가 제시한 정치론 내지는 제도개혁론에만 연구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최한기의 기사상이 이론적 측면에서 이전 기사상과 구별되는 독창적 측면이 무엇이고 또 조선조 개혁사상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독창성과 연속성의 부각이 가능하도록 최한기 기사상과 이이(李珥), 박세당(朴世堂), 홍대용(洪大容), 정약옹(丁若鏞) 등 이전 기철학적 개혁사상가들의 논의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의 시각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우선 최한기의 현실인식과 정치론을 중심으로 다수 피지배계층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호와 국가발전이라는 그의 정치목표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한기가 제시한 기철학 중심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한기 기사상의 개혁사상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한기 기사상에서 보여지는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인간간 본연적 동등성 및 인간·계층·국가·민족·지역을 포괄하는 개체의 자존성과 독립성을 의미하는 개체성(個體性)의 부각과 개체간 동등성 논리를 중심으로 ‘조선조 평등의식의 발원’이라는 측면에서 최한기 기사상의 정치사상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민중심(民中心)의 정치론과 국가발전의 정치목표

최한기가 활동한 19세기 전반기는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서양세력의 침투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내외환(內憂外患)의 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권층 내부의 갈등과 세도정치의 폐해, 그리고 매관매직(賣官賣職)⁶⁾과 중간관리계층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인해 다수 피지배계층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한편 1811년(순조 11년)

9~22쪽, 배명삼, 「朝鮮時代 思想家들의 政治 認識 李珥·丁若鏞·崔漢綺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4집(1995), 211~270쪽 등을 들 수 있다.

6) 당시에 특히 수령직(守令職)의 매매가 유행했는데, 수령직의 값은 대체로 2만 냥에서 3만 냥 사이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최한기, 「봉당정치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 『한국사 9』(한길사, 1994), 139쪽 참조).

홍경래의 난과 1862년(철종 13년) 진주민란 등으로 대표되는 피지배계층의 저항과 도전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비생산적 양반계층의 급격한 증가와 경작지의 급속한 감소⁸⁾로 인한 국가적 생산력의 저하 및 서양문물(종교로서의 천주교와 학문으로서의 서학)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 동학(東學)의 창도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었다. 또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즉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서구열강의 무력침투와 개방압력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층은 위기극복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폐쇄주의적 화이질서관(華夷秩序觀)에 몰두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피지배계층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한 민중심의 정치론과 국가발전⁹⁾의 정치목표를 가지고 조선이 처한 위기극복의 이론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던 인물이 최한기였다.

최한기가 소수 지배계층이 아닌 민중심의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우선적으로 당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한기는 당시의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는 객관적 현실관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의 현실관은 세도정치의 폐해¹⁰⁾로 인해 피지배계층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모순적 현실¹¹⁾과 생산활동의 천시(賤視)와 명분론적 국제관의 고수로 인해 국가적 생

7) 예를 들어 대구부(大邱府)의 신분계층별 호구변동상황을 살펴보면 1690년(숙종 16년) 총호수(3,156호)에서 차지하는 양반호수의 비율이 9.2%(290호), 상민호수의 비율이 53.7%(1,696호), 노비호수의 비율이 37.1%(1,172호)였던 것에 비해 1858년(철종 9년)에는 총호수(2,985호) 대비 70.2%(2,099호), 28.2%(842호), 1.5%(44호)로 각각 급격히 변동되었다(李相佰, 『韓國史: 近世後期篇』(乙酉文化社, 1965), 295~296쪽 참조).

8) 1591년(선조 24년) 251만여 결이었던 전체 경작지는 1774년(영조 50년) 출세실결(出稅實結) 807,366결로, 그리고 1844년(헌종 10년)에는 786,976결로 감소했다 위의 책 173쪽 참조.

9) 본 논문에서는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1) 동등한 인간성의 규정과 개체간의 본연적·기능적 평등성의 강조를 통한 평등질서관의 지향; (2) 자연(自然)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대외적 개방관을 토대로 한 경제적 생산력 및 국가적 부(富)의 증강; (3) 국가적 독립성의 유지와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을 통한 평등한 국가간·민족간 관계의 구축을 국가발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0) 『明南樓叢書』(경인문화사, 1971), 三, 人政, 卷二十一; 用人門二, 爲民治安 109쪽 및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二, 用人門三, 運數及朋黨, 123쪽 참조.

11)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一, 用人門二, 賤業中觀化民 101~102쪽 참조.

산력의 발전을 이룩할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지배층의 의식과 태도¹²⁾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최한기는 19 세기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일반대중의 생존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가 정치의 본질을 철저히 일반백성의 생활안정과 이익추구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군신체제의 유지 및 사회적 신분체제의 강화와 같은 지배계층 중심의 차별적 정치관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최한기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정치론과 관련하여 최한기는 공자(孔子)의 논의¹³⁾를 빌려 정치를 ‘바로잡는 것(正也)’으로 규정했다.¹⁴⁾ 공자로 대표되는 유학의 정치관에서 바로잡음의 대상은 봉건적 차별질서였다.¹⁵⁾ 그러나 최한기는 그 바로잡음의 내용을 피지배계층에 대한 지배계층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착취로 규정했다. “정(政)이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백성을 수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치(治)란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폐해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¹⁶⁾라는 최한기의 말은 이러한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만연하고 있던 것이 당시의 객관적 정치·사회적 현실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최한기에게 ‘바로잡음’의 대상은 그러한 수탈과 착취였지 결코 붕괴되고 있던 봉건적 차별질서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백성은 중요하고 관리는 가벼우며 백성이 먼저이고 관리는 뒤인 것이다”¹⁷⁾라는 말 또한 피지배계층에 대한 직접수탈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간관리계층에게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라는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한기의 정치본질에 관한 논의의 저변에는 정치권력에 대해 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그의 생애와 행적이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지배계층

12)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八, 教人門一, 宗族立教, 162 쪽,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六, 工商通運化, 222 쪽,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東西取捨, 213 쪽 등 참조

13)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論語』, 顏淵).

14) 『明南樓叢書』, 二, 人政序, 1 쪽.

15)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論語』, 顏淵).

16)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四, 測人門四, 是非, 75 쪽.

17)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 用人門一, 聽民黜陟, 92 쪽

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하게 된 인식, 즉 백성은 비교할 것이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¹⁸⁾ 비록 지극히 어리석기는 하나 그 본연적인 앎(知)은 산(神)과 같은 것이며,¹⁹⁾ 따라서 정치와 교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은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고,²⁰⁾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또한 모두 백성에게 달려 있다²¹⁾는 인식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한기가 날카로운 현실 비판과 일반 백성의 생존권을 중요시하는 민중심의 정치론을 전개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다른 사상가들과 구별되는 최한기 정치론의 혁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내정치·사회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나 정치의 본질이 다수 피지배계층의 평화로운 삶의 보호와 국가발전 에 있다는 주장은 조선조 중기의 이이(李珣)로부터 박세당(朴世堂), 홍대용(洪大容), 정약용(丁若鏞) 등 후기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기철학적 개혁사상의 공통된 특징²²⁾이었기 때문이다.

최한기 정치론의 두드러진 특성이라면 그것이 이전 개혁사상가들과는 달리 보다 명확히 평등질서관(平等秩序觀)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체로서의 인간간·계층간·국가간·민족간·지역간 관계를 바라보는 최한기의 국내외 질서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내질서관의 측면에서 최한기는 삶을 영위 하려는 동등한 욕구주체로서 모든 인간은 신분에 관계없이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²³⁾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먼저 그는 “인간에게는 원래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적 구별은 없는 것이다²⁴⁾라고 하여 신분적 차별을 하늘이 부여한 불변의 원리로 규정하는 전통적 신분관(身分觀)을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사농공상이란 다만 인간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18)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三, 用人門四 爲財擇人爲民用人, 158 쪽

19)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三, 用人門四 欺民及自欺, 160 쪽

20)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一, 測人門總論一, 測人爲萬事本原, 33 쪽

21)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六, 選人門三, 運化選舉, 311 쪽

22) 조선조 기철학적 개혁사상가들의 현실관과 정치론에 관해서는 김정호, 『근세 동아시아의 개혁사상』(논형, 2003), 제3장 1절 및 제4장 1절을 참조바람

23)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四, 測人門四, 行事, 將來事測人測, 69 쪽

24)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六, 工商通運化, 222 쪽

직업적·기능적 구분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사농공상에 종사하는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면에서 귀천의 구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최한기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지혜는 본래 귀천(貴賤)·빈부(貧富)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²⁵⁾라고 했다. 또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인간이 선택한 일을 구분하여 나누면 사농공상이라는 직업적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농공상 모두가 기(氣)의 작용원리(運化)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므로,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간 역시 모두 평등하다²⁶⁾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농공상이 서로 도와서 활동하는 것이 마치 한 몸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기능하는 것과 같다”²⁷⁾고 하여, 다만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농공상의 균형적인 직분적 분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최한기가 현실의 봉건적 군신질서까지도 부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가 정치체제로서의 군신체제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제왕권(帝王權)을 절대화·신성화하여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전통적 군신질서관(君臣秩序觀)으로부터는 완전 탈피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군주추대론(君主推戴論)²⁸⁾과 함께 한 사람(군주)이 다스리는 것과 만민(萬民=百姓)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비교하는 데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국가적 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수 민중들을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 견해로 만민의 각각 다른 견해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²⁹⁾ 철저히 다수 국민과 국가적 이익을 위한 효율적 정치수단으로서의 군주체제를 용인했다는 데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최한기의 입장은 또한 그가 “집안에서의 효자가 반드시 국가의 충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충신이 반드시 집안의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진정한 의미의 충효란 국가와 백성에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이다”³⁰⁾라고 하여 전통적인 유학적 충효관(忠孝觀)에서 벗어

25)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五, 選人門二, 薦學格式, 296 쪽

26)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一, 教人門四, 尋常中有至教, 208 쪽

27)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一, 教人門四, 商賈, 202 쪽

28)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八, 選人門五, 別界選人, 27 쪽 참조

29)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六, 萬人治一人治, 225 쪽

30)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四, 用人門五, 忠孝分別, 175 쪽

나 충효의 객체를 국가와 민족, 그리고 다수 국민으로 설정하는 근대적 입장을 피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한기의 국내정치론은 “위민(爲民)과 민본(民本)에 입각한 유가적(儒家的) 군주정(君主政)”³¹⁾을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주와 백성간, 생산계층과 비생산계층간 선천적 차별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유학적 정치관념³²⁾에서 벗어나 군민관계 및 사회내 계층관계의 본질적·기능적 동등성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군주추대론은 “군주와 신하가 된다는 것은 그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³⁾라고 하여 군주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전개했던 박세당이나, “하늘이 백성을 창조할 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임금을 삼았으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백성과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한 어찌 사람이 아니겠는가?”³⁴⁾라고 하여 현실의 군주와 백성이 인간본성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군장(君長)이 없었다. 신인(神人)이 태백산의 단목(檀木) 아래에 내려와 사람들이 그를 임금에 추대하여 단군이라고 불렀다”³⁵⁾라고 했던 홍대용, 그리고 “천자(天子)라는 자리는 군중(群衆)의 추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군중의 추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중이 추대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³⁶⁾라고 하고 또 “천자(天子)란 한 발만 내려서면 필부(匹夫)에 불과하다”³⁷⁾고 함으로써 일반 백성의 추대에 의해서만 군주권이 성립·유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던 정약용 등 이전 개혁사상가들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한기 정치론과 조선조 개혁사상 정치론과의 연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1) 안외순, 앞의 논문(2001), 77 쪽

32) “唯上知與下愚不移”(『論語』, 季氏);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論語』, 季氏); “或勞心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孟子』, 滕文公上); “未有這事 先有這理 如未有君臣 已先有君臣之理 未有父子, 已先有父子之理”(『朱子語類』, 卷九十五).

33) 『西溪全書』(太學社, 1979), 上, 南華經註解, 卷五, 外篇 徐無鬼, 第二十四 677 쪽.

34) 『湛軒書』(景仁文化社, 1972), 內集, 卷一, 四書問辨, 孟子問疑, 23 쪽.

35) 『湛軒書』, 外集, 卷二, 乾淨術筆談上, 537-538 쪽.

36) 『與猶堂全書』(景仁文化社, 1970), 第一集, 卷十一, 詩文集 論 湯論 233 쪽.

37) 『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 孟子要義, 卷二, 148 쪽.

다른 한편으로 최한기가 사농공상간의 기능적·직업적 동등성을 피력했을 뿐 “노비제도나 축첩 등과 같은 조선사회의 특이한 신분제도를 부정하지 않은 것”³⁸⁾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한기는 이미 군주를 다수 피지배 백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자학적 정치질서관을 장기간 지속해 온 조선의 상황에서 사농공상의 신분질서 이외에 노비제도의 완전한 타파까지 주장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최한기 정치론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주장³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충효의 대상을 명확히 국가와 민으로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최한기 정치론의 본질은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의 기능적 동등성을 토대로 다수 민(民)의 온전한 삶의 보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조선 조 개혁사상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이전 사상가들과 구별되는 보다 발전적 의미로서의 최한기 정치론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최한기 정치론의 혁신적 측면은 국제질서관에서 더욱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국제질서관과 관련하여 최한기는 개체로서의 국가·민족·지역 등이 서로 다른 형질, 환경 및 습관에 의해 형성된 그 개체만의 독자적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동등하며, 동시에 각기 자신들의 국가·민족·지역들에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공통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평등적 대외질서관의 입장을 견지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그는 “각국의 정교(政敎)와 운화(運化)는 그 국가의 토질(土質)의 마땅함과 숭상하는 풍속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한 평가받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털이 붉은 나라(紅毛國)에서야 어찌 붉은 털이 천한 것이 될 것이며 얼굴이 검은 나라(黑面國)에서야 어찌 검은 얼굴이 추한 것이 되겠는가?”⁴⁰⁾라고 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 등이 각기 고유한 자존적 특성을 가진 개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재색(財色)을 욕구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모두 같고 의식(衣食)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업에 몰두하는 것도 모두가 동일하다”⁴¹⁾고 하

38) 김병규, 「최한기의 사회사상」, 최영진 외 앞의 책 300 쪽

39) 黃景淑, 「惠岡 崔漢綺의 社會思想의 構造와 性格」, 『韓國學報』, 제70호(1993), 78 쪽

40)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一, 測人門一; 天下測人同異, 15 쪽

41)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六, 測人門六, 人道, 統察人道, 101 쪽.

여 욕구주체로서의 국가간·민족간·지역간 평등성을 강조했다. 최한기의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차별적 화이질서관에서 벗어나 한민족이 타국 또는 타민족과는 다른 한민족만의 고유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타개체와 동일하게 자국 또는 자민족의 삶과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근대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한기는 단순히 모든 국가·민족·지역 등이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독자성과 보편적인 이익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민족·지역이 각기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체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 기철학적 개혁사상가들의 논의로부터 진일보한 입장을 취했다.⁴²⁾ 그는 “서방 사람이 지은 서적은 동·남·북방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동방 사람이 지은 서적은 서·남·북방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며, 남·북방 사람이 지은 서적은 또한 동·서방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⁴³⁾고 하여 각국 또는 각 지역이 상호보익(相互補益)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최한기는 더 나아가 서양의 역법이 그 이치(理致=所以然)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반면, 중국의 역법은 당연한 운기(運氣)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⁴⁴⁾ 이러한 중국 역

42) 구체적으로 홍대용은 “중국은 서양에 대해서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正界)으로 삼고 서양을 변방(倒界)으로 여기며, 서양 사람은 서양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방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를 막론하고 지역에 따라 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세계를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변방이란 없고 모든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다”(『澗軒書』, 內集, 補遺, 醫山問答, 332쪽)라고 하여 노장적 상대관과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국가간 동등성을 주장했다. 정약용 또한 “나는 소위 중국(中國)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中)이 되는지 모르겠고 동국(東國)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東)이 되는지 모르겠다. 무릇 이미 동서남북의 중심이 되면 중국이 아닌 곳이 없으니 이른바 동국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무릇 이미 중국 아닌 곳이 없으니 이른바 중국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與猶堂全書』, 詩文集, 卷十三, 序, 送韓校理致應使燕序, 266쪽)라고 함으로써,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는 국제질서관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상가들의 논의는 개체간 동등성에 바탕을 둔 민족주체성 확립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국가간·민족간·지역간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최한기의 사상은 이들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43) 『明南樓全集』(驪江出版社, 1986), 一, 明南樓隨錄.

44)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中西曆異同, 211쪽.

법의 결합을 서양의 역법을 통해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⁴⁵⁾ 이와 같은 최한기의 주장은 그가 이미 중국문명의 우월성에서 벗어나 서구 과학지식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폐쇄적 국제관을 지양하고 개방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최한기의 인식⁴⁶⁾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최한기는 자기 나라 또는 자기 지역의 습성과 문화(종교 및 제도 등)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고루한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견문(見聞)을 통해 타국 또는 타지역을 이해하며, 그러한 객관적 이해를 근거로 다른 개체의 장점을 수용하여 자신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던 것이다. 그가 “각국에 대한 견문을 통찰하면 흑인·백인과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섞여 있고, 코가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 붉은 털을 가진 사람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사람 등을 볼 수 있으니 그런 후에야 천하의 사람들의 용모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⁷⁾고 한 것이나, 각국 또는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神)이 있음을 인정하여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고 타종교를 배척하는 일을 삼갈 것을 요구함으로써⁴⁸⁾ 당시 조선조의 철저한 천주교 탄압정책과는 달리 서교(西敎)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인 것 등은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볼 때 최한기에게 조선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효율적인 대외적 대응방식은 당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서구에 대한 조선의 낙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고정관을 버리고 서구문물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변해야 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⁴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관에 나타난 최한기의 입장은 당시 급속히 전파된 서구지식, 특히 지리적 지식을 적극 수용한 결과이며,⁵⁰⁾ 그가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한 부국적(富國的) 정책론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최한기는 객관적 현실관을 바탕으로 개체간 동등성에 기초한

45)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中西曆異同 211 쪽 참조

46)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中西曆異同 213 쪽 참조

47)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六, 測人門六, 人道, 統察人道, 100쪽.

48)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三, 用人門四, 萬國治安在用人 147 쪽

49)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三, 用人門四, 萬國治安在用人 314 쪽

50) 최한기가 수용한 지리적 지식의 내용에 관해서는 權五榮, 앞의 책, 308-320쪽을 참조 바람.

평등적 정치질서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목표가 군주 또는 소수 귀족계층의 지배권 유지논리나 전통적 국제질서관을 극복하여 다수 피지배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한기는 그러한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매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철학(氣哲學) 중심의 인성론 및 우주론을 전개했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한기 기사상이 지닌 특성과 정치사상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정치목표 달성의 이론적 토대

1. 삶의 욕구주체 및 개체성 보유주체로서의 인간간 동등성 논리

최한기의 정치목표가 봉건적 차별질서가 초래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여 대내적으로 고통받는 피지배계층의 생존권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용적인 서구문물의 도입과 적용을 통해 공동체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음은 앞서 언급했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피지배계층의 생존권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본연의 삶의 유지의 중요성 보다는 인간이 현실의 군신(君臣)·상하간(上下間) 신분질서에 순응하는 성선(性善)의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유학의 차별적 인성론⁵¹⁾에서 벗어나 각기 자존적 특성을 지닌 동등한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인간성 규정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최한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최한기는 먼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稟受) 것은 일단(一團)의 신기(神氣)와 기(氣)를 통하게 하는 제규(諸竅=인체에 있는 외부와 통하는 아홉 개의 구멍) 및 사지(四肢)이니 갖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고, 이것 이외에 다시 별도

51) “君子謀道不謀食，耕也餒在其中矣，學也祿在其中矣，君子憂道不憂貧”(『論語』，衛靈公)；“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我固有之也，不思耳矣”(『孟子』，告子上)；“仁之實，事親是也，義之實，從兄是也，知之實，其斯二者不去是也，禮之實，節文斯二者是也”(『孟子』，離婁上)；“蓋所謂道者，率性而已，性無不有，故道無不在，大而父子君臣，小而動靜食息”(『中庸或問』)；“天命之謂性亦是理，天命如君之命令，性如受職於君，氣如有能受職者，有不能守職者，某問天命之謂性”(『朱子語類』，卷四，性理一)。

로 다른 것에서 얻어온 것이라고는 없다”⁵²⁾고 하여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이미 하늘로부터 보편적 차별원리(仁義禮智)를 선천적 본성으로 부여받았다는 유학적 인성론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그는 그와 같은 제규와 신체사지 그리고 신기는 나와 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⁵³⁾ 인간 사이의 본연적 동등성을 피력했다. 최한기에 따르면 이렇게 형체를 지니게 된 인간은 각 감각기관의 운동작용을 주재하는 신기(神氣)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며, 손으로 잡고 발로 다니며, 목이 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게 된다.⁵⁴⁾ 이처럼 눈과 귀, 손과 발이 각각 작용하고 내장기관이 상호 연결되며 혈액이 그 사이로 흐르는 것이 바로 성(性)이고, 그러한 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명(命)이라는 것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모두 자신의 신체활동으로 대변되는 삶의 유지를 본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생성(生成)과 쇠로(衰老)의 자연원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 하고 풍요롭게 하며 즐겁게 하려는 모든 욕구 또한 그 자체로 선악(善惡)을 판단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가 “하늘이 정함(天誨) 성품이야 어찌 선악을 나눌 수 있겠는가”⁵⁶⁾라고 한 것은 성선설(性善說)이니 성악설(性惡說)이니 하여 인간을 작위적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논의들을 배척하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며 누구나 먹고 마실 욕구를 가지고 있다”⁵⁷⁾고 한 것은 삶의 욕구주체로서 인간의 본연적 동등성과 자연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의식주 생활의 충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던 당시 피지배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최한기의 정치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본성(常性)을 가지고 있어 옷을 지어 입고 농사지어 먹

52)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知覺推測皆自得 10 쪽

53)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通人我之通 13 쪽

54)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神氣通序 4 쪽

55)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一, 教人門四, 性命, 214 쪽

56)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二, 測人門總論二, 測好賢妒賢 47 쪽

57)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二, 口通 饑飽與人同 52 쪽

는다. 이것을 동덕(同德)이라 한다 무리 지어 치우치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천방(天放)이라 한다”⁵⁸⁾고 했던 노장(老莊) 인성론의 내용이기도 하며 최한기와 동일한 정치목표를 가지고 전개되었던 조선조 기사상 인성론의 보편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⁵⁹⁾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전 기사상가들과는 달리 최한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 이외에 물욕추구까지도 인간의 본성적 요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즉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재색(財色)과 명리(名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⁶⁰⁾ 다만 그것이 사회 내에서 정당하게 추구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만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지 물욕 그 자체를 문제삼아 제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⁶¹⁾이라고 했다. 따라서 소위 유학적 전통에서 강조하는 극기의 가르침도 후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욕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고⁶²⁾ 주장했다. 최한기가 이처럼 물욕을 인간 공통의 본성으로서 규정한 것은 무엇보다 유학적 차별관에 의해 저지당해온 인간의 물욕을 과감히 개방시켜 농·공·상 등 일반백성의 개별적 이익추구권을 확보하려는 정치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물욕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욕구추구가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인간은 무한정한 이기욕 추구의 주체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인가? 최한기는 이에 대해 “식욕의 한계는 배를 채우는 것으로 준적(準的=基準)을 삼고 색욕의 한계는 산육(產育)으로 준적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준적에 미치지 못하면 변통(變通)하여 만족시키고 준적에 지나치면 억제하여 줄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식·색욕 추구에는 스스로 그쳐야 할 한계가

58) “彼民有常性，織而衣，耕而食，是謂同德，一而不黨命曰天放”(『莊子』，馬蹄).

59) 예를 들어 이이는 “배고플 때 먹으려 하는 것 목마를 때 마시려 하는 것 추울 때 입으려 하는 것, 가려울 때 긁으려 하는 것 등은 성인(聖人)이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다(『栗谷全書』，卷七，書，答成浩原)라고 하여 인간을 삶의 욕구주체로 규정했다. 박세당 역시 인간을 식욕(食欲·색욕(色欲)과 지각운동의 주체로 규정(『西溪全書』，下，孟子思辨錄 告子上，136 쪽)하면서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모든 인간은 삶을 욕구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西溪全書』，下，孟子思辨錄 告子上，140 쪽)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대용 정약용 등 조선조 후기 기사상가들의 인성론에서도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인간성 규정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湛軒書』，內集，補遺，鬻山問答，338-339쪽 및 『與猶堂全書』，第二集，經集，大學講義，卷二，25쪽 참조).

60) 『明南樓叢書』，二，人政，卷八，教人門一，行事教，162쪽.

61) 『明南樓叢書』，一，推測錄，卷六，推物測事，物欲自有中正，207 쪽.

62) 『明南樓叢書』，二，人政，卷十一，教人門四，除物欲，222 쪽.

있는 것이다”⁶³⁾라고 했다. 최한기가 이처럼 욕구추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인간이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⁶⁴⁾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⁶⁵⁾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기욕 추구가 일반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던 당시의 현실에서 무한정한 욕구추구의 인정이 곧 사회 내 착취와 수탈을 합리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며 누구에게나 먹고 마실 욕구가 있다. 천만인이 있으면 천만인의 음식이 있으며 억조민(億兆民)이 있으면 억조민의 음식이 있으니 자기 혼자만 음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하물며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빼앗아 자기가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은) 반드시 그 원함과 분함을 갚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탐욕스러운 관리가 일반백성의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조정이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을 뽑아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만을 살찌우며 나라를 좀먹게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⁶⁾

이처럼 인간이 욕구추구의 존재이며 욕구 그 자체는 선악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최한기에게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간이 타인(他人) 또는 타물(他物)에 접하여 행하는 인간관계의 행위적(行爲的=行事的), 다시 말해 실천적 차원의 문제였다.⁶⁷⁾ 그가 “신기(神氣)가 인물(人物)과 교접하면서 선과 악이 형성되는데, 처음 교접에서 선과 악이 비롯되고(始), 재차 교접에서 선과 악이 생기며(生), 여러 차례의 교접이

63)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三, 生通, 產育準的, 58쪽.

64)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一, 人政測人序, 6쪽.

65) 금장태 교수는 이러한 최한기의 인간 욕구추구의 한계 지적을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의 성리학적 명제와 일치하는 것”(금장태, 「정약용과 최한기의 인간이해」, 최영진 외 앞의 책 191쪽)으로 보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물욕까지도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으로 인정한 최한기의 인성론과 인욕의 위험성과 천리로의 회복을 당위로 상정하는 성리학적 인성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66)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二, 口通, 饑飽與人同, 49쪽.

67) 權五榮, 「최한기 氣學의 사상사적 의미와 위상」, 『大東文化研究』, 第45輯(2004), 31쪽 참조.

누적되어서(累) 선과 악이 형성된다”⁶⁸⁾고 한 것은 선악의 형성이 욕구주체로서 개인의 실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사회 내에서의 타인 또는 타물에 대한 개인적 실천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선과 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 이익추구권을 적극 인정하는 최한기의 입장에서 선악이란 곧 이해(利害)를 뜻하는 것⁶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한정한 이기욕 추구를 시인하여 초래할 위험성 즉 지배계층의 사리사욕 추구에 따른 피지배계층의 고통이라는 현실적 모순을 합리화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최한기로서는, 타인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최한기는 개인적 차원의 이익추구 행위의 선불선(善不善)은 그 개인이 교접하는 타인 또는 타물에 미루어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내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다”⁷⁰⁾라고 했다. 즉 개인적 이해가 사회 내 다른 개체의 이해와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비로소 선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한기의 입장이었다.

이상과 같이 최한기는 당시 고통받는 피지배계층의 생존권 확보와 이익보호라는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삶의 욕구주체로서 규정하는 인성론을 전개했다. 동시에 개인적 욕구추구가 타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적 국가발전이라는 자신의 정치목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욕구주체로서의 인간성 규정에 인간간 본연적 동등성의 논리가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최한기 기사상 인성론의 첫 번째 중요한 정치사상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최한기가 인성론의 차원에서 전개한 이론적 논의 중에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은 개체로서 인간 개개인의 자존적 특성, 즉 개체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전 기사상가들이 주로 이기론적 측면에서 인간과 사물 사이의 개체성 부각의 논리를 제시하거나⁷¹⁾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농공상의 계층간 기능

68)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一, 教人門四, 大小善惡, 208쪽.

69)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三, 變通, 善惡利害, 73쪽.

70)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一, 推測提綱, 善惡有推, 95쪽.

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주력했다면, 최한기는 명확히 개체의 단위수준을 개인으로 까지 확대⁷²⁾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개체성 논리를 전개했다.

국가발전론과 관련해 볼 때 개체성 인정의 논리는 대내적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국가적 생산력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대내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 개인 또는 계층이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 또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개체의 독자성, 즉 개체성을 적극 인정하는 논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신분상 또는 직업상의 선천적(先天的)인 차별을 강조하는 논리를 거부하고 개체간 기능적 평등론에 입각한 사고를 견지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⁷³⁾

이에 대하여 최한기는 먼저 인간이 각기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선악행위의 발단이 자신의 환경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⁷⁴⁾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선악은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 습성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선악이 이처럼 후천적 습속(習俗) 경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적·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때에 따라 선이 악으로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으로 될 수도 있는 변화 가능한 것⁷⁵⁾이다. 중요한 점은 최한기가 이와 같은 가변적 선악을 선택할 능력과 자율권을 개인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⁷⁶⁾ 그는 이에 대해 “선하나 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여 취하는 데 달려 있고,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힘쓰기에 달려 있다”⁷⁷⁾고 했다. 선악의 기준이 이익(利)과 해로움(害)에 있고 그러한 선

71) 『栗谷全書』, 卷十, 書, 答成浩原, 3쪽 및 『西溪全書』, 上, 南華經註解, 卷三, 外篇, 天地第十二, 579쪽 참조

72) 김한식, 앞의 논문, 15쪽

73) 이와 관련하여 홍대용은 비록 최한기와 같이 인간 개개인의 개체성을 논증하지 않았으나 “대개 인품에는 고하(高下)가 있고 재질에 장·단점이 있다 그 고하(高下)에 따라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쓰면 천하에 전혀 못 쓰고 버릴 재질이란 없다”(『湛軒書』, 上, 內集, 補遺, 林下經綸 306쪽)고 함으로써 개개인의 장점을 사회적 발전의 토대로 삼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74)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一, 推測提綱, 善惡有推, 95쪽

75)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通人之遷移, 33쪽.

76) 김한식, 『實學의 政治思想』(一志社, 1979), 143쪽 참조

77)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知覺推測皆自得, 10쪽

악의 선택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최한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상호 교접을 통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미루어 헤아려서(推測) 통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각이 보유한 장점을 수용하여 서로에게 이익되는 바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습관에 의해 형성된 호오(好惡)만을 고집하는 편협성으로 인해 쉽게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병통(病痛)을 없애기 위해서는 편협적 습관을 제거하고 마음을 공평히 가지며, 많이 듣고 많이 보아 타인에게서 좋은 점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과 타인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⁷⁸⁾이 최한기의 논리이다.

최한기의 이러한 논의는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인간의 동등성 이외에도 개별 인간이 모두 각기 자신의 환경과 견문을 통해 이룩한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⁷⁹⁾는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개체성 보유주체로서의 인간간 동등성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최한기의 이와 같은 인식이 유학적 차별관이나 폐쇄관에서 벗어나 개방적 입장에서의 평등한 인재등용 및 교육론의 제시, 그리고 서구문물의 과감한 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론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이라 하겠다.

2. 동등성과 개체성 부각,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우주론 및 인식론

최한기는 자신의 인성론에서 표출한 이와 같은 개체로서의 인간간 동등성과 독자성 논리를 기철학적 우주론을 통해 자연계 내에서의 인간과 타개체간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자연 및 사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이해의 인식방법을 제시했다. 최한기의 정치목표인 국가발전론과 관련해 볼 때, 자연계 사물의 독자적 특성 인정 및 객관적·과학적 이해의 인식방법은 대내적 물적자원을

78)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三, 變通, 除祛不通, 74쪽.

79)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九, 教人門二, 教通事務, 171쪽, 『明南樓叢書』, 二, 卷十四 選人門一, 以事爲準, 267쪽.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한기가 정책론의 측면에서 농업적 기술의 수용과 실용적 과학기술의 활용을 적극 주장한 것⁸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한기는 먼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생성하여 그 삶을 유지하게 하고 만사가 각기 작용하도록 하는 주체를 일기(一氣)로 규정했다.⁸¹⁾ 최한기에 따르면 이러한 일기는 순수하고 맑은 상태로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물질로서 자체의 운동원리(運化)⁸²⁾를 가지고 만물의 생성과 사물의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이다.⁸³⁾ 또한 그것은 영원불멸한 것으로 만물의 생과 사는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취산 작용에 의한 것일 뿐,⁸⁴⁾ 기 자체가 생성과 소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러한 기(氣)의 개념정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⁸⁵⁾하고 있는 것처럼 최한기 고유의 주장은 아니다.

이전의 기철학적 우주론과 구별되는 최한기 우주론의 혁신성은 자연계 내 모든 만물과 만사가 이와 같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일기(一氣)의 운동원리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부여받은 동시에 각각의 형질과 자신의 환경에서 익힌 습관에 따라 그 삶의 방식과 작용방식을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체간 동등성과 더불어 개체의 독자성 및 자존성을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먼저 “기(氣)는 하나이지만 인간에게 품부되면 자연히 인간의 신기(神氣)가 되고 사물에 품부되면 자연히 사물의 신기가 된다 인간과 사물의 신기가 같지 않은 까닭은 그 질(質)에 있지 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⁸⁶⁾라고 하여 인간과 사물 사이의 같은 것은 동일한 기를 부여받았다는 점이며 다른 것은 그러한 기가 형질을 달리하는 각 개체에 부여되어 생성된 그 개체만의 신기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기가 같다는 것과 신기가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80)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東西取捨 213 쪽 참조

81)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 教人門三, 不知運化, 195 쪽

82)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九, 教人門二, 數運化乎宇內, 169 쪽

83)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天人之氣, 7 쪽

84) 『明南樓叢書』, 一, 卷二, 推氣測理, 氣聚生散死, 118 쪽

85) 이와 관련하여 김한식 교수는 서경덕의 기철학(氣哲學)이 최한기의 기철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으며(김한식, 앞의 책, 246 쪽 참조), 권오영 교수 역시 최한기의 기철학이 조선 조 주기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권오영, 앞의 책, 64-67 쪽 참조).

86)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氣質各異, 12 쪽

것인가? 최한기에게 기가 같다는 것은 곧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 있어서는 그들이 모두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갖는다는 것이고 물체에서는 각각의 물체에 내재하는 불변의 작용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한기가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배부름을 알고,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해로움을 피하는 것은 인간이나 물(物=生物)이 모두 같다”⁸⁷⁾고 한 것이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에는 일정하게 바뀌지 않는 조화의 법칙이 있다”⁸⁸⁾고 한 것은 이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신기(神氣)가 다르다는 것은 생물의 경우 각각의 형질이나 거처하는 환경 그리고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영위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⁸⁹⁾ 물체의 경우 형상과 재질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현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한기는 이처럼 만물의 신기(神氣)가 각각 다르다는 데 그치지 않고 만물이 자기 자신만이 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체의 독자성 논리를 보다 확고하게 견지했다. 즉 그는 “깃과 털을 가진 짐승은 누에의 옷감을 알지 못하고, 벌레들은 궁실을 알지 못하며, 이슬을 마시는 것은 어육(魚肉)을 알지 못하고, 덮쳐서 다른 것을 잡아먹는 것은 경작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저것이 잘하는 것은 이것이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잘하는 것은 저것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⁹⁰⁾라고 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인성론을 통해서 자기 장점을 가진 동등한 욕구주체로서 인간이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최한기는 동일한 기를 부여받은 모든 개체가 서로의 장점을 알고 이해할 때 즉 신기가 서로 통할 때 비로소 만물 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요한 점은 최한기의 이와 같은 개체성 부각과 개체간의 조화·협력의 필요성 제시가 국가간·민족간·지역간 관계로 확대될 때 단순히 국가적·민족적·지역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 고유한 장점을 지닌 모든 평등한 국가·민족·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최한기의 국제질서관과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정책론에

87)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動植異事, 194 쪽

88)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五, 推己測人, 推測異用, 178 쪽

89)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取物生養, 205 쪽

90)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動植異用, 194 쪽

서 나타나는 그의 개방적 태도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이것은 이이에서 비롯되고 홍대용과 정약용에서 구체화되었던 개체의 독자성 논의(의91)가 최한기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고 발전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사상사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계 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동등한 모든 개체가 서로의 개체성을 수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다시 말해 서로의 신기(神氣)가 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한기는 이를 이기론을 통해서 규명했다.

최한기는 개체의 자존적 원리와 변하지 않는 자연의 객관적·보편적 원리를 모두 이(理)로 보았다. 그가 이이, 홍대용, 정약용과 같이 “사물에는 사물의 기(氣)와 이(理)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기와 이가 있다”⁹²⁾고 한 것이나, “인간의 성(性)은 소나 말의 성이 아니고 소나 말의 성은 초목의 성이 아니다”⁹³⁾라고 한 것은 형질에 따라 다른 개체만의 고유한 특성, 즉 자존성을 이(理)로 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이란 천지가 유행(流行)하는 이(理)이다”⁹⁴⁾라고 하고 “하늘의 기가 유행하는 이치는 사물이 마땅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 원래 증감이 없다”⁹⁵⁾고 한 것은 불변의 객관적·보편적 자연원리를 이(理)로 본 것이다. 즉 그에게 이(理)란 기의 조리(條理)로서,⁹⁶⁾ 개체가 형성됨에 따라 그 개체가 가지게 되는 자존의 원리인 동시에 모든 개체를 형성하고 작용하게 하는 보편적인 근원체인 일기(一氣)의 운동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물론 이기(理氣)는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⁹⁷⁾ 그

91) 예를 들어 이이는 “인간의 성(性)이 사물의 성이 아니고 개(犬)의 성이 소(牛)의 성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개체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栗谷全書』, 卷十, 答成浩原, 壬申, 3쪽)라고 하여 인간 및 사물의 자존적 특성의 차이에 기초한 개체성을 강조했다. 홍대용 또한 “인간은 인간의 이(理)가 있고 사물에는 사물의 이가 있다”(『湛軒書』, 內集 卷一, 心性問, 2쪽)고 함으로써 개체의 독자성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사상을 전개했다. 정약용 역시 “개는 개의 성이 있고 소는 소의 성이 있다”(『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 孟子要義, 卷二, 145쪽)고 하여 이이, 홍대용과 동일한 논리를 전개했다.

92)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推測如喙, 126쪽.

93)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五, 推己測人, 推測異用, 178쪽.

94) 『明南樓叢書』, 一, 卷二, 推氣測理, 自然當然, 132쪽.

95)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序, 79쪽.

96)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八, 教人門一, 理卽氣, 167쪽.

97) 『明南樓叢書』, 二, 卷十二, 教人門五, 理氣學, 235쪽.

선후에 기가 있어야 반드시 이(理)가 있을 수 있고 기가 없다면 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⁹⁸⁾ 만물의 근원으로서 말하면 기가 하나이니 이도 하나이고 만물의 분수(分殊)를 말하면 기가 만(萬)이면 이도 만인 것⁹⁹⁾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한기는 이러한 기(氣)가 유행(流行)하는 원리로서의 이(理), 즉 개체에 서의 자존적 원리와 객관적인 사물의 원리는 인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사물의 본성을 이루는 이치(理致=所以然)는 진실로 규명하여 말하기 어렵다”¹⁰⁰⁾고 했다. 이처럼 자연의 원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하고 광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기에 의해서 품수(稟受)받은 지각할 수 있는 형체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각을 통해 보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터득한 경험을 통해 사물의 원리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최한기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추측을 통해서 얻은 이치를 기의 운동원리인 유행의 이(理), 즉 자연의 원리와 구분되는 추측의 이(理)라고 하고,¹⁰¹⁾ 이와 같은 추측의 이(理)만이 나와 사물, 나와 남을 연결해줄 수 있는, 즉 신기(神氣)가 통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고 했다.¹⁰²⁾ 이러한 추측의 이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사물과 인간, 나아가서는 개체와 개체 사이에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있다는 것과 물체의 형상이 다름에도 이를 작용하게 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함을 깨달아 동등한 개체로서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사물의 원리를 응용하여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한기는 단순히 인간이 모두 추측의 이(理)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곧 자연의 원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지각과 경험은 형체의 온전함이나 처한 환경 및 습관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추측의 이(理) 또한 인간마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추측하여 얻은 이치를 이(理)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¹⁰³⁾ 그 자체가 모두 유행의 이(理)라고는 할 수 없다¹⁰⁴⁾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자연의 원

98)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流行理推測理, 121 쪽

99)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氣一理一, 122 쪽

100)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推物性測大地, 215 쪽

101)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天人有分, 127 쪽

102)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推測如蛆, 126 쪽

103)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序, 79 쪽

리를 이해하여 이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추측을 타인의 추측과 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추측의 이(理)를 유행의 이(理)와 통하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의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¹⁰⁵⁾과 자신의 추측의 이(理)를 지속적으로 사물에 비추어 실증하고 변통(變通)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할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실리(實理)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실리의 획득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최한기는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최한기는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며 개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우주론과 인식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최한기의 우주론과 인식론은 전통적인 조선조 기사상의 흐름과 인간 및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 서구지식의 영향¹⁰⁶⁾ 및 최한기 사상의 독창적 측면이 결합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개체간 동등성 및 협력과 조화에 기초한 공동체적 발전을 지향하는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자연계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전제로 하고 단일개인, 단일국가 또는 민족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서구적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IV. 정치목표 달성의 정책대안

이 절에서는 최한기가 자신의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특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정책론은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개체간 동등성, 개체성 부각의 논리,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 등 최한기 기사상의 이론적 논의들이 어떻게 피지배계층의 생존권 확보 및 국가발전의 실천적 대안과 관련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04)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二, 推氣測理, 天人有分, 127 쪽

105)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形質推測異通, 21 쪽

106) 최한기 기학의 형성과정에 미친 서학의 영향에 관해서는 權五榮, 앞의 논문, 23~30 쪽을 참조바람.

첫째, 최한기는 무엇보다 통치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근절하여 고통받는 피지배계층의 온전한 삶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신분·혈연·문벌 및 가문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관리임용방식을 배격할 수 있는 철저한 능력본위의 평등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등용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진실로 백성에게 안정과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천거해야 하며, 만약 백성을 해치고 위태롭게 한다면 비록 은인이라도 천거해서는 안 된다”¹⁰⁷⁾고 하고 또 인재를 문장이 박학(博學)한 것만을 가지고 뽑으면 문장에만 힘써 실천이 없고 요행만을 바라며, 인재를 문벌이나 색목(色目=黨派 또는 親族)만을 가지고 뽑으면 거기에서 제외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없게 되고, 인재를 너물이나 청탁에 의해 뽑으면 쓰기에 부적합한 사람만 많아지고 정작 쓸 만한 사람은 등용될 수 없다¹⁰⁸⁾고 함으로써 귀천이나 빈부, 그리고 지역적 원근(遠近)이나 친불친(親不親)에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민생의 안정과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¹⁰⁹⁾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최한기는 관리선발 방법에 있어서 관 주도의 일률적인 과거제보다는 공의(公議), 즉 민의(民意)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추천제(推薦制=薦舉制)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서 실제로 과거나 선거나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公議)에 따라 발탁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의에 따르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선거가 과거보다는 낫고, 지금까지 쌓인 폐단으로 본다면 선거의 폐단보다 과거의 폐단이 훨씬 많다. 이것은 대개 한 번에 선발하는 인원수가 적으면 사람을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쉬운 반면 인원수가 많으면 그 헤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¹¹⁰⁾

이와 함께 최한기는 시험에 의한 인재선발(科擧)의 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할 일 없는 관리만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년에 1 차례만 과거를 실시할

107)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四, 選人門一, 爲濟民事, 278 쪽

108)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六, 測人門六, 地位, 上, 93 쪽

109)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十八, 選人門五, 以國爲家而選人, 30 쪽

110)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五, 選人門二, 科擧選舉參用, 302 쪽

것을 주장했다.¹¹¹⁾ 그리고 관직에 얽매이지 않는 정치자문기구로서의 국외선(國外選)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¹¹²⁾ 또한 모든 관리들이 의식(衣食)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봉록을 충분히 제공할 것¹¹³⁾과, 업무수행의 공과에 따른 상벌기준의 조례화(條例化)¹¹⁴⁾ 등 구체적 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로, 이처럼 인재선발에서 모든 차별·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최한기는 “단지 한 가지 선(善)이나 한 가지 장점, 한 가지 기술(技術), 한 가지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상의 비천함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써야 한다”¹¹⁵⁾고 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개체성 인정 논리에 기초한 능력본위의 인재등용과 적재적소에의 배치를 요구했다. 그가 이미 인성론에서 모든 인간이 각기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증한 것과, “심지어 장님이라도 듣는 데에는 쓸 수 있고 귀머거리라도 보는 데에는 쓸 수 있으며, 병어리라도 말이 필요 없는 데에는 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라도 한 가지 전문분야에는 쓸 수 있다”¹¹⁶⁾고 한 점으로 미루어 최한기의 인재등용론은 사회 내 개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시켜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려는 그의 정치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최한기 사상의 동등성과 개방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⁷⁾

111)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十五, 選人門二, 科擧, 293쪽.

112)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十八, 選人門五, 局外選賢俊, 48쪽.

113)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二, 用人門三, 祿俸財用, 129쪽.

114)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 用人門一, 黜陟條例, 91쪽.

115) 『明南樓叢書』, 二, 人政, 卷一, 測人門一, 總論, 朝廷姓名相格, 26쪽.

116) 『明南樓叢書』, 三,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六, 可不可中不可不可, 219쪽.

117) 신분을 초월하여 개체로서의 사회 내 모든 개인의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홍대용의 정책론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홍대용은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 낭묘(廊廟)에 들어가 앉더라도 참담할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으면 공경(公卿)의 자식이 종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湛軒書』, 內集, 補遺, 林下經綸, 307쪽)고 하여 전통적인 신분적 차별관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개체성에 기초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인재를 적소에 등용하도록 촉구했다. “대개 인품에는 고하(高下)가 있고 재질에 장단점이 있다 그 고하에 따라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쓰면 천하에 전혀 못 쓰고 버릴 재질이란 없다. 면에서 가르치는 데에는 그 뜻이 높고 재질이 많은 사람은 위로 올려 조정에서 쓰도록 하고, 그 재질이 둔하고 용렬한 사람은 아래로 돌려 야(野)에서 쓰도록 하며, 그 생각이 창의적이고 숨씨가 재빠른 사람은 공업으로 돌리고, 이(利)에 밝고 재화를 좋아하는

셋째로, 최한기는 동등성과 개방성의 논리를 국내적 차원에서 확대시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양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서양의 모든 나라들과 통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상업하는 선박은 교역할 것을 살펴 대비해야 하고, 병선(兵船)은 전쟁의 위험을 예방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¹¹⁸⁾라고 하여 국제현실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관을 바탕으로 최한기는 서구의 과학지식과 제도 등 장점들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바다에 선박이 두루 다니고 서적이 서로 번역되어 견문을 통한 서로의 이해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국의 것 중에서 진실로 우리의 것보다 훌륭한 법제나 우수한 기용(器用)이나 좋은 토산물품 등이 있다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수용하여 써야 한다...특히 그 중에서 측량학과 계산학, 윤기(輪機)와 풍차(風車), 선박 및 대포제조기술과 같은 것은 매우 실용적인 것들이다.¹¹⁹⁾

이와 같은 제도·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최한기는 “유학 중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윤리적인 것만을 취하고 귀신과 재앙에 관한 논의들은 버리며, 서양의 법 중에서는 역산(曆算)과 기살(氣說)을 취하고 괴이하고 속이는 것과 화복(禍福)에 관한 것은 제거하며, 불교 중에서는 허무적인 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삼교(三教)를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것을 돌아보아 새롭게 개혁한다면 온 천하를 통해 행할 수 있는 교(教)가 될 것이다”¹²⁰⁾라고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학과 불교, 그리고 서교(西教)의 종교적 교리를 부정하면서 오직 객관성과 과학성 그리고 실증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둔 의식의 통합을 요구하

사람은 상업으로 돌리며, 그 꾀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은 무반(武班)으로 돌리고 소경은 점쟁이로, 궁형(宮形) 당한 사람은 문지기로 돌리며, 병어리·귀머거리·얕은뺨이까지도 각각 모두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해야 한다(『湛軒書』, 內集, 補遺, 林下經綸 306 쪽). 이 점은 전통적으로 조선조 기사상적 개혁사상가들이 개체성 부각의 논리를 국가발전의 정책대안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118)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四海文字變通 16 쪽

119) 『明南樓叢書』, 一, 推測錄, 卷六, 推物測事, 東西取舍 213 쪽

120) 『明南樓叢書』, 一, 神氣通, 卷一, 體通, 天下教法就天人而質正 16 쪽

기도 했다. 최한기가 비록 위의 예문에서 오륜(五倫)으로 대표되는 유학적 윤리관의 유지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그의 정치론, 인성론, 우주론, 인식론 등에서 보여지듯이 그것은 봉건적 차별질서의 유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덕목과 개체성과 동등성에 기초한 조화와 화합, 그리고 평화로 대표되는 범세계적 윤리덕목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¹⁾ 이렇게 볼 때 최한기의 사상이 이미 이전 기사상적 개혁 사상가들의 동도서기(東道西器)나 중체서용적(中體西用的)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변혁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19세기 중·후반 내외외환의 격변기에 피지배계층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호와 국가발전을 목표로 조선조 기사상의 전통과 서구지식의 수용,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독창성을 발휘하여 위기극복의 사상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던 최한기 기사상(氣思想)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최한기의 기사상은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그의 정치목표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정치목표 달성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대안이 일관성을 가지고 표출된 매우 체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적 차별과 동아시아의 전통의 화이질서관(華夷秩序觀)을 강조하는 차별관에서 벗어나 개체간 관계의 동등성을 피력하는 평등질서관 구축 지향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의 기사상에 나타난 인성론은 삶의 욕구주체로서의 인간간(人間間) 본연적 동등성과 개별 인간의 독자성(獨自性), 즉 개체성의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선조 기사상 인성론의 전통에서 개체성의 수준이 사회 내

121)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안외순 교수는 “최한기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유술(儒術)은 원시 공맹유학이며....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삼강이 기각된 오륜”이라고 하였으며 (안외순, 앞의 논문(2001), 79쪽), 권오영 교수는 “(최한기가) 종래 오륜을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군신간의 의리에 국한되었던 문제에서 해방시켜 자기 시대에 세계인을 화합시키는 강령으로 제창하였다”(권오영, 앞의 논문, 38쪽)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인으로부터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상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한 우주론(宇宙論)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 모든 개체 사이의 동등성과 자존성을 우주원리로 논증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다음으로 최한기 기사상에 나타난 기철학적 인식론(認識論)은 최한기 사상의 독창적 측면이 가장 부각된 것으로서 모든 개체가 상호보익(相互補益)할 수 있는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개체간 일체론(一體論)과 함께 사물의 작용 및 운동원리에 대한 객관적·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한기의 기사상은 서구적 평등론과는 다른 ‘개체간 동등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조화와 협력’이라는 동아시아적 평등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중요한 정치사상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급속한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인식을 지녀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최한기의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社會政策論叢』 제3집 제2권 2001, 137~169 쪽
權五榮,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研究』, 서울: 集文堂, 1999.
- _____, 「최한기 氣學의 사상사적 의미와 위상」, 『大東文化研究』 第45輯 2004, 21~44 쪽
- 권오영 외, 『혜강 최한기: 동양과 서양을 통합하는 학문적 실험』, 서울: 청계출판, 2004.
- 金都鍊 譯註, 『論語』, 서울: 玄音社, 1990.
- 김만규, 「理氣論의 政治的 照明」, 『제4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1981, 59~79 쪽
- 金容沃, 『讀氣學說 최한기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2004.
- 김용현, 「최한기 연구의 어제와 오늘」, 『오늘의 동양사상』 제8호, 2003, 209~226 쪽
- 김정호, 『근세 동아시아의 개혁사상』, 서울: 논형, 2003.
- 김한식, 『實學의 政治思想』, 서울: 一志社, 1979.
- _____, 「혜강사상에 나타난 근대성 논리의 구조」, 『韓國政治學會報』 제34집 4호, 2000, 9~22 쪽
范善均 譯解, 『孟子』, 서울: 惠園出版社, 1997.

- 朴世堂, 『西溪全書』. 서울: 太學社, 1979.
- 박희병, 『문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서울: 돌베개, 2003.
- 배병삼, 「朝鮮時代 思想家들의 政治 認識 李珣·丁若鏞·崔漢綺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4집, 1995, 211~270 쪽
- 손문호, 「惠崗 崔漢綺의 정치사상 연구: 『人正』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제6집 2003, 227~245 쪽.
- 안외순, 「유가적 군주정과 서구 민주정에 대한 조선 실학자의 인식 惠崗 崔漢綺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제35집 4호, 2001, 67~86 쪽
- _____, 「조선에서의 민주주의 수용론의 추이: 최한기에서 독립협회까지」 『社會科學研究』 제9호 2000, 38~65 쪽.
- 李氏樹 譯解, 『莊子』. 서울: 惠園出版社, 1997.
- 李相伯, 『韓國史: 近世後期篇』. 서울: 乙酉文化社, 1965.
- 李 珣, 『栗谷全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 이행훈, 「崔漢綺 政治思想의 근대적 성격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1집 2002, 153~174 쪽
- 이현구, 『崔漢綺의 氣哲學과 西洋科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 丁若鏞, 『丁茶山全書』. 서울: 文獻編纂委員會, 1960.
- _____, 『與猶堂全書』. 서울: 景仁文化社, 1970.
- 정운재 외,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朱 熹, 『朱子大全』. 서울: 景文社, 1977.
- _____, 『朱子語類』.臺北: 中華書局, 1982.
- 최완기 외, 『한국사 9』. 서울: 한길사, 1994.
- 최영진 외,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崔漢綺, 『明南樓叢書』. 서울: 景仁文化社, 1971.
- _____, 『明南樓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86.
- 黃景淑, 「惠岡 崔漢綺의 社會思想의 構造와 性格」 『韓國學報』 제70호 1993, 65~110 쪽
- 洪大容, 『湛軒書』. 서울: 景仁文化社, 1972.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3.

● 주제어(keyword) : 최한기(Choi Hanki), 기사상(氣) Thought, 개체성(Individuality), 동아시아적 평등론(East Asian Theory of Equality)